여성결혼이민자의 일-경험 및 일-만족 탐색 연구

최 혜 림(경희대 석사) · 오 윤 자(경희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일-경험 및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므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통한 개인 및 가족생활의 우선순위 욕구 충족은 물론 향후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정책연구원(2009)의 「경기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실태조사」자료에 기초한 2차 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을 통한 연구인 바, 이는 다문화 가족의 낮은 경제적인 절대빈곤수준 또는 차상위빈곤수준으로 인하여 정확한 설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 관련한 의사소통 및 표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차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571명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일-경험 및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요인, 가족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배우자연령, 동거 자녀수, 경제만족도, 한국에 거주기간(년)으로 구성, 인적요인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어실력,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구성, 가족요인으로는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찬반정도와 교육에 대한 가족의 지원정도이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검증(χ^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일-경험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있어서 경제수준 만족도, 한국거주기간(년)에서, 인적요인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어실력, 본국 및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에서, 가족요인에서는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찬반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일-만족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배우자연령, 경제수준 만족도가, 인적요인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가족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일-경험에 있어서는 한국거주기간(년)수, 인적자본 요인에서는 건강상태,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어실력이, 가족요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찬반정도가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한 건강상태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은, 우선 개인의 인적자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일경험에 차이를 나타내므로 관련 교육의 방향성과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는 일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역시 우리사회에서 취업을 할 때에 기존의 선주민 여성과 같이 이중적인 노동의 부담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일 경험을 통한 일 만족감을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차원에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